

◀ 신년 기획기사 2탄

친절이 사라진 상권, 대부도 관광의 경고등

안산시 대부도는 수도권 대표 당일·주말 관광지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상가가 불친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는 일부 상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다.

불친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상인들의 심리적 여유를 앗아갔다. "친절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체념은 무뎌진 응대 태도로 이어진다. 여기에 가족 경영·소규모 점포 중심의 상권 구조는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 기회를 차단해 왔다. 친절을 '투자'가 아닌 '번거로운 일'로 여기는 인식도 여전하다.

또한 단골 위주 장사와 성수기 관광객 의존 구조 역시 문제다. 초행 관광

객에 대한 응대는 소홀해지고, 일시적 수요에 기대다 보니 장기적 신뢰 관리가 약하다. 1인 운영과 고령 상인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 과중한 노동 역시 친절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인이다. 여기에 상권 차원의 친절 캠페인이나 인센티브, 지자체·상인회·관광 정책 간 연계가 부족했던 점도 한몫했다.

친절은 가장 확실한 관광 투자다

해법은 분명하다. 먼저 상인 개인 차원에서는 '친절은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동일한 메뉴와 가격 속에서 관광객의 재방문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응대 경험이다. 눈을 맞추는 인사, 짧은 환영 한마디, "감사합니다·조심히 가세요"라는 마무리 멘트만 지켜도 '불친절' 평가는 크게 줄어든다. 불만이 제

기될 때는 반박보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공감의 한 문장이 갈등을 낮춘다.

상인회와 지역 차원에서는 '친절 상점' 공동 캠페인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참여 상가에 현판과 스티커를 부착하면 관광객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을 갖게 된다. 관광지 상권에서 친절은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며,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이어진다. 불친절한 한 곳이 상권 전체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반면, 친절한 한 가게는 "대부도는 괜찮다"는 인식을 만든다.

대부도의 경쟁력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다. 상인의 친절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보상받아야 할 지역 경쟁력이다. 친절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관광 투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과 (주)선킴모터스 상생방안 협의 (주)선킴모터스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에너지·친환경 기술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가운데 8일 대부도저널과 공동투자를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은 협의를 마친 양측 관계자들이 신문사 회의실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오른쪽부터 윤성용 대부도저널 대표이사, 김광현 (주)선킴모터스 회장, 정호태 행정학 박사 경영고문, 기혜영 대외협력총괄실장이다. <관련기사 4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학교시설 개방 사업 시민 이용자 90% '만족'

67개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상생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어

안산시가 시민과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열린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 사업이 시민들의 생활 편의 개선을 이끌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는 관내 학교시설 개방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 개방시설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지난 달 1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관내 67개 학교 가운데, 야간 주차장 개방 학교를 제외한 54개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뤄

졌다.

조사 결과, 시설 이용 만족도는 94.4%, 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90.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조사와 비교해 시설 만족도는 약 14%, 운영시간 만족도는 58% 상승한 수치다. 학교 개방 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들이 제시한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운영시간 조정 또는 확대 ▲체육관 조명 등 인프라 보완 ▲청결한 시설 유지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평일 야간 시간대 직장인 계층의 이용이 증가한 데 따른 운영시간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다수의 학교가 오후 9시까지 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방 시간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체육관 조명 교체, 급수시설 설치, 외부 보안등 설치 등 시설 환경 개선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학교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에는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편의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다음주 신문 휴간
편집국 연수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대부도 전역 불법성토·불법개발행위 특별단속 강화

무심코 한 성토도 처벌 대상 "불법개발행위 연중 단속"

안산시가 대부도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한 무허가 절·성토, 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농지 성토 기준 완화와 농지개발행위 신고제 도입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규모 불법 성토가 증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지의 경우 조성 완료 시 2m 이내 성토는 가능하지만,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농지개발행위 신고를 해야 한다. 염전이나 잡종지 역시 50cm 이내 성토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부개발과는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매립지나 1,000㎡ 이상 농지 성토가 적발될 경우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도시주택과 등 관계 부서와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반입, 비산먼지·소음 발생, 농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방아머리 시화방조제 입구 전광판을 비롯해 대부도 주요 도로 곳곳에 안내 문구를 게시 중이다. 불법개발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민군 안산시장, 새해 민생 속으로 한 걸음...‘희망 동행’ 출발

시 승격 40년 맞는 2026년 시민 곁으로 ‘희망 동행’시작

안산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동행은 지난 6일 성포동 소재 경로당과 아파트 방문으로 첫선을 보였으며, 시장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경로당, 상가 지역 등 주민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 새해 인사를 전하고 민원·제안을 수렴한다.

오는 2월까지 관내 129개 아파트와 71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평일 저녁 시간대 일정도 편성, 퇴근 후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일정은 ▲새해 인사 및 ‘시 승격 40주년 시정 방향’ 소개 ▲시민과의 자유 대화 ▲현안 민원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 대화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동력을 얻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첫 일정으로 진행된 성포동 아파트 주민과의 동행 행사



이민군 안산시장(맨 앞줄 가운데)이 6일 저녁 성포동 소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는 거점인 김홍도미술관에서 진행됐으며, 예술인·주공4단지·현대1차·선경아파트 입주자 시민이 다수 참여했다. 퇴근 시간 이후 진행된 간담회는 성포동 소재의 한 카페에서 열렸으며, 성포주공10단지, 11단지, 파크푸르지오 입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경수초 학교복합시설 조성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노적봉 공원 시설 개선

등 지역에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미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현장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번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민군 시장은 “이번 동행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섬김 행정의 시작”이라며 “아파트와 경로당 곳곳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변화의 첫걸음으로 삼아,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모두가 희망으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도시공사 2026년 시무식 개최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시무식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경영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개발사업 및 시민 중심 서비스 확대 추진... 조직개편으로 실행력 높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승)는 5일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시민 중심 서비스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새해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다짐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는 CEO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경영목표와 주요 과제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올해 ▲자체사업 매출액 100억 원 달성 ▲시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창의적·협력적 조직 문화 조성 ▲ESG 경영 S등급 달성을 주요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자체사업 매출 1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는 중장기 사업이지만, 본래 도에 오르기 전 초기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전이라는 ‘출발’의 의미를 담았다.

공사는 이번 매출 목표 달성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적·조직적 실행력을 검증하고, 단계적인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 참여형 취미·문화 프로그램 확대하고,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업무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SG 경영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공사는 이러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체육처를 ‘수영사업부’와 ‘체육사업부’로 분리하고, 개발사업 확대에 대응해 기존 건설관리부와 도시개발부를 ‘도시개발1부’와 ‘도시개발2부’로 재편함으로써 보상·시공·분양 기능을 사업 단위별로 연계·통합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은 기존 3본부 1처 2실 10부 32팀 1TF에서 3본부 2실 12부 34팀 체계로 개편됐다.

시무식 이후에는 구내식당에서 ‘새해맞이 떡국 나누기 행사’가 열려, 허승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원들에게 직접 떡국을 배식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2026년은 자체사업 성장과 시민 체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경기도 최초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4호선(안산역)에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도입지로 선정된 안산역 버스정류장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교통요충지다.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는 기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버스노선 정보와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새해부터 안산역 인근 버스정류장 두 곳에 총 4개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및 환승 센터에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군 시장은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된 안산역 버스정류장의 모습이다.

정희재 기자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2025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사업 우수기관 선정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2025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사업 평가에서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관은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민간위탁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고용사업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실제 사업체

경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고용 지원사업이다.

복지관은 지난해 취업성공률 81.3%, 장애인 근속 유지율 100%를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 적응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선정 관장은 “고용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市, 화물·운수 행정 역량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

2년 동안 대형 차량 임시주차장 861면 조성 적극적 제도·단속 평가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화물·운수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화물자동차 민원 처리 노력도 ▲임시주차장 조성 실적 ▲화물운송 관련 단속 추진 실적 등 화물·운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는 서면

및 확인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며, 차별화되고 전문성 있는 화물·운수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대형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임시주차장 3개소(561면) 조성 ▲2025년 임시주차장 1개소(300면) 조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261건) ▲불법 밤샘 주차 제도 및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 조사 처리(12건) 등이 꼽힌다.

특히, 시가 추진한 ‘대형자동차 임

시주차장 개장 및 운영 홍보’와 관련해서는 도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실무 부서 담당 공무원도 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선정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민군 시장은 “안산시는 대형자동차 주차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시책 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 전면 해설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6.3지방선거 공천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는 원칙 아래 설계돼 있다. 이 같은 공천 혁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본격화됐으며, 지역경선 도입을 통해 당원들이 공천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공천의 첫 관문은 예비후보 자격검증위원회다. 이 단계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정성적 기준에 따라 도덕성·자질·책무성을 엄격히 검증한다. 예외 없는 부적격자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과한 예비후

보들은 모두 경선에 참여한다. 즉, 1차 검증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미 혹독한 검증을 거친 인물들이다.

후보가 다수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예컨대 후보가 10명이라면 A조와 B조로 나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각 조에서 2명씩 선출한다. 이후 본경선은 4명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선호투표를 병행해 반드시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만 최종 후보가 된다.

본경선에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투표가 이뤄지며, 준비 기간은 약 10일에서 2주가 소요된다. 반면 권리당원 투표는 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즉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권리당원에게 후보 소개 동영상과 문자 안내를 2회 제공한 뒤 투표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클린선거 암행감찰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소수 상무위원 중심 투표로 부정 개입 우려가 제기된 점을 개선해, 현재는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부정 요소가 음습하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를 목표로 17개 광역시·도별로 비밀 감찰요원을 파견한다. 지방선거 공천

실무는 시·도당이 맡되, 중앙당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시스템 오류가 아닌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산시장 후보 공천 역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가 10명 이상인 만큼,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 2차 본경선은 당원과 시민 50대 50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A·B조 예비경선을 거쳐 4명이 본경선을 치를 경우, 낙천자 승복과 선대위원장 참여를 통해 선거 승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곧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적 절차와 철저한 감찰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김태창 기자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날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날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소멸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 안산 지역발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 김태창 기자

성포예술광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 등 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투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안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투입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보행환경 개선과 문화공간 정비, 노후 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서화합의 숲 꽃길 보완 조성사업(2억 원),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2억 원), ▲매화교하부 외 1개소 환경정비 사업(1억 5천만 원), ▲성포예술광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4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트럭단위경매장(채소동) 환경개선공사(2억 5천만 원)가 포함

됐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화와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공원·보행로·공공시설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정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전했다.

덧붙여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문화공간 확충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안산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화정식당**은 손맛에 정성과 마음까지 함께합니다.
화정식당과 함께 다양한 한정식 메뉴를 맛보세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27
032-883-3007
단체석 완비 · 예약 환영



선김모터스 ‘2025 에너지·친환경 기술대상’ 수상 대부도저널과 공동투자로 친환경 시너지 기대

친환경 기술 미래 밝혀
선김모터스 수상 쾌거
대부도저널과 혁신 동행

(주)선김모터스(회장 김광현)가 국내 환경·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5 에너지·친환경 기술대상’을 수상하며 친환경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순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선김모터스는 친환경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으르렁터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재활용과 정밀 연마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해당 기술은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며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술대상에는 전국에서 31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우수 기술 기업이 선정됐다. 김광현 회장은 “이번 수상은 전 임직원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의 결과”라며 “으르렁터보는 단순한



국내 환경·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주)선김모터스 김광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대부도저널 윤성용 대표가 8일 신문사 회의실에서 상호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술적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상과 함께 대부도저널

과의 공동투자는 기술과 인력이 결합한 새로운 상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부도저널 윤성용 대표는 “선김모터스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우수한 친환경 기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언론 역시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수행

하겠다”며 “지역과 기업,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김모터스와 대부도저널의 이번 협력은 친환경 기술의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동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태창 기자

행낭곡 항포구에 공중화장실 조성... 관광객 불편 해소 기대

행낭곡어촌계 사무실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새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행낭곡어촌계 사무실 야외 공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낭곡어촌계 내부에 화장실은 있었지만, 어촌계 전용 시설로 상시 개방되지 않아 일반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행낭곡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찾기 못해 주변을 해매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 조성되는 공중화장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형 화장실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시는 개방화장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한 상태이며, 예비계획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낭곡은 아름다운 항포구 풍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 만큼, 공중화장실 조성이 완료되면 방문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낭곡을 자주 찾는 관광객 A씨는 “항포구가 아름다워 자주 방문하지만



구봉도 제1주차장에 조성된 공중화장실의 모습으로 이같은 화장실이 행낭곡어촌계에도 조성될 전망이다.

화장실이 없어 늘 불편했다”며 “야외에 공중화장실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풍·육도 주민과 현안 논의 소외 없는 도서 행정

안산시는 지난 5일 신년을 맞아 안산시청에서 대부도 풍·육도 주민들을 초청해 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상민 풍도 통장을 비롯해 마을 대표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풍·육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지역 현안 사업인 풍도 골재 채취 사업의 진행사항과 당진화력발전소 발전소 특별회계의 풍·육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주민들은 향후 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풍·

육도가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민 통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풍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 향후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안산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기자

단원구,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307건 적발·계도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상·하반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잠복조, 활동조, 단속조를 구성해 새벽 및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지도·단속팀은 불법소각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 노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름 휴가 행락철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불뎀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총 307건(적발 37건, 주민계도 270건)의 위반사항에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산불 예방 및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신희 기자 tlgsm1121-73@naver.com

대부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뜻깊은 봉사활동, 선행 이어져



국제사이버대학교, K-시니어모델클럽, 한국평생교육복지센터 세 기관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 대부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동근세상'에서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K-시니어모델클럽, 한국평생교육복지센터 세 기관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 대부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동근세상’에서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자리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니어 모델들과 회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위킹, 순가락 난타, 라인댄스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단순한 공연과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참가자들과의 소통과 격려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동근세상’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패션쇼와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시니어 모델들은 장애인들과 짝을 이루어 다양한 자세와 포즈를 선보였다. 모델들은 장애인 참가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으며,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니어 모델들은 참가자들에게 위킹, 포즈, 표정 등을 차근차근 가르치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날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자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참가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봉사자들과 장애인 참가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다

정다운 기자 jdju000@nate.com

대부도 종현동 맛집 ‘진천순대’ 여행객이 꼭 들러야 할 이유



종현동에 위치한 '대부도 진천순대'의 간판이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다. 대부도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한 번 들러야 할 대표적인 로컬 맛집으로 손꼽힌다.

대부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입소문이 자란 곳, 바로 종현동에 위치한 '대부도 진천순대'다. 이곳은 대부도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한 번 들러야 할 대표적인 로컬 맛집으로 손꼽힌다.

진천순대의 가장 큰 매력은 잡내 없이 깔끔하고 깊은 맛의 국물이 다.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구수해 첫 순갈이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푸짐하게 담긴 고기와 속이 꽉 찬 순대는 '진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젊은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친절 서비스다. 밝은 미소와 세심한 응대는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며, 처음 방문한 손님도 단골처럼 편안하게 맞이한다.

이러한 이유로 진천순대는 현지 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집으로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도 여행 중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찾고 있다면, 진천순대집에서 정성 가득한 순대한 그릇으로 특별한 맛의 추억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새해 첫 업무협약은 교육청과 미래교육 협력 강화 맞손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심에 둔 미래 교육모델 구축”

안산시가 2026년 새해 첫 업무협약으로 교육청과 손잡고 미래교육 협력 지구 시행에 나선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일 안산시청에서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과 ‘안산 미래교육 협력지구(경기 공유학교 학교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 확대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며 시행하는 교육 협력 모델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2023년 9월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올해부터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경기 공유학교 학교 맞춤형’



이민근 안산시청(오른쪽 두번째)이 2일 안산시청에서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체제로 전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 교육협력 플랫폼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자율·균형·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안산 품은학교’ 사업을 포함한 11개 세부 사업을 교육청과 함

께 추진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며 “미

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미래 교육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그리너스, 2026시즌 동계 전지훈련 출발



안산그리너스FC가 본격적인 2026 시즌 준비를 위해 1차 동계 전지훈련에 나선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최문식 감독, “전지훈련 통해 전술적 완성도 높일 것”

안산그리너스FC(이하 안산)가 본격적인 2026 시즌 준비를 위해 1차 동계 전지훈련에 나선다.

안산은 지난 4일 1차 전지훈련을 위해 중국 쿤밍으로 출국했다. 이번 1차 전지훈련은 오는 30일까지 약 25일간 진행되며, 이후 경상남도 남해로 이동해 내달 14일까지 2차 동계 전지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산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 강화와 함께 조직력 및 전술 완

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간의 호흡을 맞추며 2026시즌을 대비한 전술적 틀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산 최문식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선수단과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팀의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26시즌에는 한층 달라진 안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성포고등학교, Let's be H.O.T ! 교과 연계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전달

교과연계 친환경 팔 째질팩 제작과 플리마켓 수익금으로 지역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

성포고등학교(교장 김학범)는 1월 5일, 학생들의 교과 연계 활동 결과물과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성포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학생들은 교과 수업을 통해 나눔을 위한 물품을 직접 제작했다.

1학년 통합사회 수업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문제에 주목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팔 째질팩을 제작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소비의 의미를 탐구했다.

또한 기술·가정 수업에서는 쿠션과 방식을 제작해 생활 밀착형 기부 물품을 마련함으로써 교과 학습의 결과가 실제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아리 축제와 연계해 학생 참여형 플리마켓을 운영했다. 플리마켓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기부받은 학용품과 의류 등 생활 물품을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전액은 장갑, 넥워머, 영양제 드링크 등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다.

이처럼 교과 연계 활동 결과물과 플

리마켓 수익금으로 마련한 물품은 모두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제작, 운영, 수익금 활용, 기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나눔과 공동체, 환경의 가치를 함께 체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범 교장은 “이번 활동은 교과 학습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성포고등학교는 1월 5일, 학생들의 교과 연계 활동 결과물과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성포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립국악단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 음악회 14일 연다

안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안산문화예술회관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2026년도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전통적인 국악의 매력과 현대적인 색깔을 조화롭게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년 음악회는 국악의 아

름다움과 현대 음악의 다채로움을 관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태진아와 민속 소리의 대가 권재은, 전통 무용의 예술을 보여줄 오수연과 김서량, 민요 전성결과 색소폰 연주가 오재한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신년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무대를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악회 관람료는 R석 12,000원, S석 10,000원이며, 안산문화예술회관(031-481-4000) 또는 놀인터파크 티켓 누리집(<https://nol.interpark.com/ticket>)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다운 기자
jdudu000@nate.com

안산대학교 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 학술제 개최

음식으로 전공 성과와 성장의 결실 선보여

안산대학교 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는 지난 12월 19일, 졸업을 앞둔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재학생들이 2년간의 전공 교육을 통해 습득한 조리 이론과 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개인의 전문성과 팀워크를 함께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발효음식, 제과제빵, 전통 병과·한과, 푸드카빙 등 다양한 전공 교과목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개인 작품과 그룹 작품을 제작·전시했다. 특히 이번 학술제는 단순한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콘셉트에 맞춘 플레이팅과 테이블 세팅까지 학생들이 직접 기획·구성해 실제 외식 및 전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감각을 체현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학생들은 음식의 완성도뿐 아니라 색감, 구성, 콘셉트 표현까지 세심하게 고민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학술제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맡아온 교수 및 겸임교수진을 비롯해 1학년 재학생과 예비 신입생들이 함께 참석해 전시 작품을 관람했다. 관람객 투표를 통해 우수 작품이 선정됐으며, 개인작품 부문

과 그룹작품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이 수여됐다.

개인작품 부문 최우수상은 컬러푸드를 활용한 ‘오색김밥’을 선보인 최예자 학생이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색감과 영양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룹작품 부문 최우수상은 소금빵과 떡, 오미자 음료를 활용한 ‘마음의 힐링을 위한 삼차림’을 표현한 ‘푸드테라피연구소’ 팀(송영선·최예애·박순례 학생)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푸드테라피의 의미를 음식 구성과 테이블 연출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안산대학교 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 장진아 책임교수는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이 2년간 쌓아온 전공 역량을 스스로 정리하고, 현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표현해 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후배와 예비 신입생들에게는 학과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산대 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는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전시·발표형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조리·식생활·푸드테라피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본오1동, 1사1경로당 두 군서 후원협약 체결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지역 기업인 안산농산물(주)와 인바이오텍(주)이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돕기 위한 '1사1경로당'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산농산물(주)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바이오텍(주) 관계자도 “우리 지역의 뿌리인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수 이호경로당 회장과 각순덕 본원경로당 회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후원을 결정해 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다운 기자 jdujd000@nate.com

익명의 기부자, 본오3동에 후원금 30만원 기탁



상록구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익명의 개인 기부자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3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부자는 과거 어려운 시기에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도움받았던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아 그 마음을 지역사회에 다시 전하고자 이번 후원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을 밝히는 것을 사양한 채 후원금만 전달한 후 자리를 떠나 훈훈함을 더했다.

기부자는 “이전에 도움을 받아 감사

했던 기억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흥 본오3동장은 “새해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했다.

또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베스트태권도장, 선부3동에 사랑의 라면 후원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베스트태권도장 수련생들이 직접 기부한 사랑의 라면을 기탁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선부3동에 위치한 베스트태권도장(대표사범 김주용)은 수련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교육하고자 라면 나눔 행사를 가졌으며, 수련생들이 봉지라면 238개를 모으는 데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주용 대표사범은 “수련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게 되어 뜻 깊고, 조금이나마 관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수련생들이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사범으로서도 마음 한 곳 시름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승혁 선부3동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베스트태권도 관계자들과 수련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라면은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동 직능단체, 수암산 방문객들에게 온기 나눔



상록구 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안산동 직능단체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암산 방문객들에게 2026년 새해맞이 온기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봉사는 새마을회(회장 양광열) 회원들이 다양한 약재를 넣고 24시간 정성껏 끓인 한방차를 만들어 새해를 맞아 수암산을 방문한 등산객들에게 대접했다.

수암산을 방문한 등산객들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와 핫팩, 질서유지

덕분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하연 안산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새마을지도자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직능단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등 봉사 활동으로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정이 넘치는 안산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FOREVER모임(바다유통), 이동에 컵라면 전달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FOREVER모임(바다유통)으로부터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컵라면 180박스, 각티슈 13개를 기탁받았다고 6일 밝혔다.

FOREVER모임은 안산시 관내 청년모임 단체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컵라면을 후원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FOREVER모임 관계자는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배분해 달라며 라면을 후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

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이동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 FOREVR모임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새마을지도자초지동협의회, 초지동에 내복 기부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새마을지도자초지동협의회(회장 서상복)로부터 아동용 내복 100벌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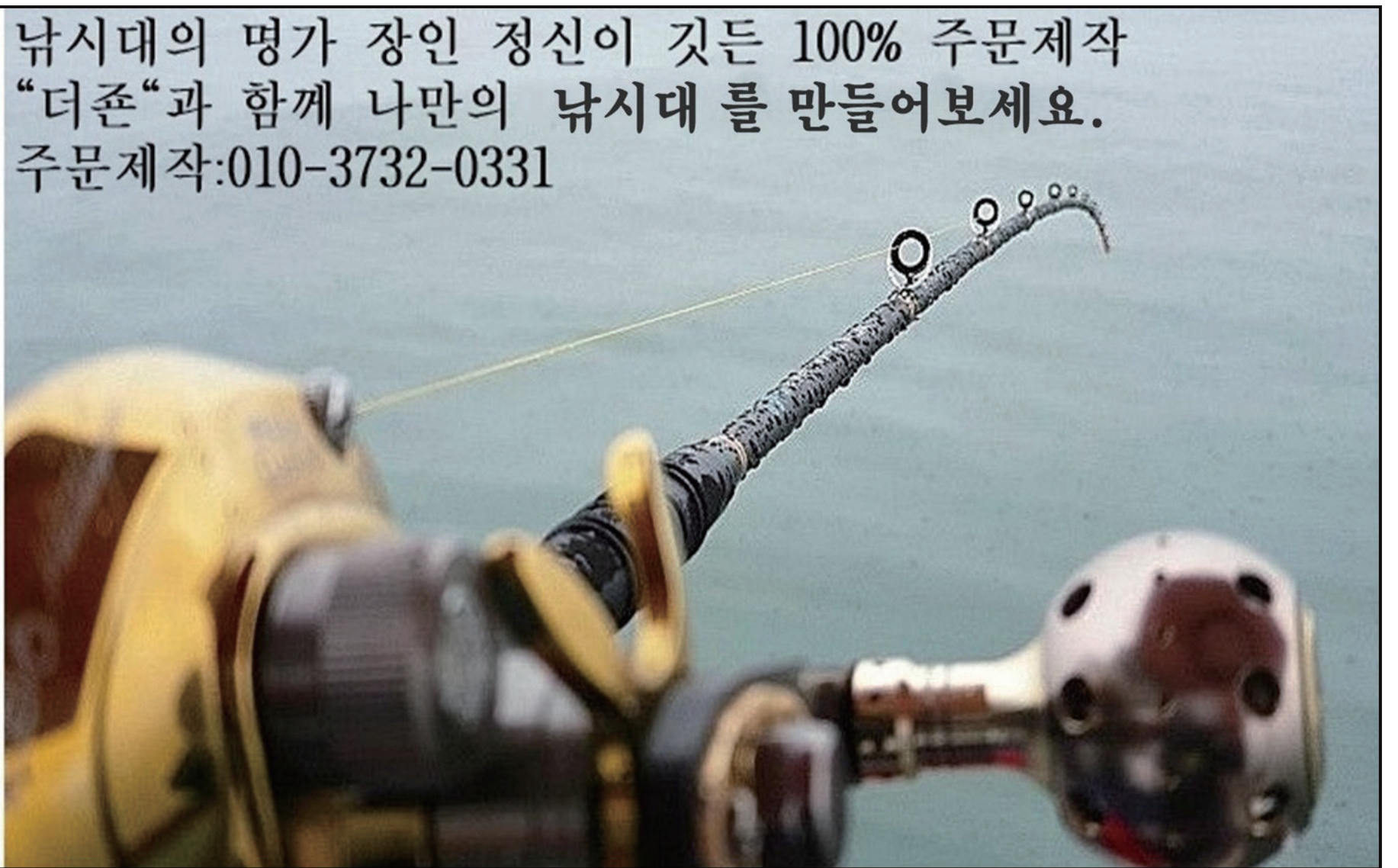
이는 새해를 맞아 리브코퍼레이션(대표 오명희)에서 새마을지도자초지동협의회에 기탁한 후원품이다. 리브코퍼레이션은 유아용 의복 제조업체로, 기탁된 물품은 초지동 내 어린이 집에 전달해 겨울철 내의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서상복 새마을지도자초지동협의회

장은 “새해를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후원품을 보내주신 오명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황병노 초지동장은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아동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동에서도 주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ujd000@nate.com



낚시대의 명가 장인 정신이 깃든 100% 주문제작
“더존“과 함께 나만의 낚시대 를 만들어보세요.
주문제작:010-3732-0331



법률사무소 화쟁
PARK & KIM LAW OFFICE

깊이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변호사

연락처 : 010 - 7929 - 8012

약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화쟁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변호(담당) 전문 분야

- ◆ 형사 소송
 - ▶ 성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 강력범죄(상해, 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 ▶ 학교폭력(정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 형사 소송
 -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 ▶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입) 및 면허행정소송 등
- ◆ 행정 소송
 -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고법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 공무원행정소송 등

광 고 문 의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010.7259.2177

*** 전원주택 매매 물건 찾습니다 ***



김선중 공인중개사

TEL (032) 883-1554
Mobile 010-3199-4992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로 132 (대부남동)

준공 5년 이내 신축
대지 150평 내외, 건물 30평 내외, 방3개
연락을 기다립니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관리 전) (관리 후)

미 성 산 업
정 원 관 리
010-8973-2371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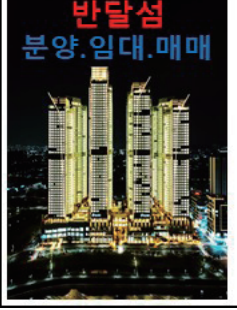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리라조경

박 용 복

M. 010-3703-9300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웅진군, 문경북 군수 북도면을 시작으로 연두방문 돌입

군정발전방안 모색 위해 문 군수, 최선 다하겠다

웅진군은 지난 6일, 문경북 군수가 북도면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회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유관기관 방문 등 민생현장을 살피고, 군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해 연두방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에 앞서, 문경북 군수는 북도면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면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평화대교 개통 이후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장봉도 해식동굴 안전 개선 등이 기관 건의되었다.

신년인사회는 문경북 군수, 인천광역시 의회 신영희의원, 웅진군의회 김영진 부의장, 이종선의원, 김규성의원, 김택선의원, 김민예의원, 지역 리더 및 유관기관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도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새해 덕담을 나누며 한해 발전과 무사안녕을 기원했고, 아쉽게 퇴임하는 장봉1리 노인회장 등 7명의 지역리더에게는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공로패가 전달됐다.

북도면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문경북 웅진군수가 6일, 북도면을 방문해 신년 인사회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유관기관 방문 등 민생현장을 살피고, 군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해 연두방문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연두방문을 펼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등 4개의 유인도서와 11개의 무인도서 등 총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으로 수기해수욕장과 웅암해수욕장, 신도 천일염과 전통 재래김인 장봉김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날 문경북 군수는 “새해 붉은 말이 해인 병오년은 2026년 웅진군 사

자성어로 선정된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군민과 동행하며, 웅진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66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4개 섬의 경로당 및 위문시설 등을 돌며, 민생현장을 살피고, 새

해 인사를 전했으며, 유관기관에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빈틈없는 업무수행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당부하며 새해 첫 연두방문을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자원봉사센터 2026년 기존 사업 내실화



웅진군자원봉사센터는 2026년을 맞아 기존 자원봉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교육자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다(多)함께 차차차」를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통합에 나섰다. 김태창 기자

신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多)함께 차차차”추진

웅진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홍득표)는 2026년을 맞아 기존 자원봉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교육자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다(多)함께 차차차」를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통합에 나선다.

센터는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 ▲행복 잇기 뜨개 사랑 ▲Green 스마일 웅진 ▲반짝반짝 웅가네 등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보호, 정서적 돌봄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다(多)함께 차차차」는 지역 내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과 지역사회 문화·생활예절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웅진군자원봉사센터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봉사 모델을 발굴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주민 체감형 법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웅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다니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마을번호사와 관제부서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

며 전했다.

또 “앞으로도 군민이 어려움 없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 북도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섬마을 악취 해소 기대 생활환경·해양수질 개선”

웅진군은 2026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은 인천광역시와 사업별 택시 총량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신도평화대교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북도면 지역에 개인택시 2대를 신규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면허 신청일 현재 사

업구역 안에서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대상자 선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웅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경력 분류별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1월5일부터 2월6일까지이며, 면허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법무부, 웅진군의 주민 법률복지 강화 성과 인정

『마을번호사 제도 운영 유공』 웅진군, 법무부 표창 수상

웅진군은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마을번호사 제도 운영 유공’분야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마을번호사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14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으며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에 대한 공훈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웅진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법률 상담이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

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번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웅진군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번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운영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 방문 없이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부도, 혁신과 관광이 만나는 미래도시”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회장 : 황 진)는 2022년 6월 창립 이후 대부도에 인구 5만명을 수용할 혁신도시를 조기에 조성할 목적으로 규제 완화, 낡은 관행과 철학의 혁신, 대부도 공식 관광지 지정에 힘써 왔습니다.

내년에는 대승단지에 AI 데이터 센터 등 최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선거 매니페스트 운동(공약 실천 촉구 운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자선 모금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입니다.(지난 3년간 약 2,500만원 상당 성금 및 물품 전달)

규제 혁신 · 관광 개발 · 첨단 산업 유치 · 나눔
네 가지의 약속은 인구 5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의 다짐입니다.

“발전과 사람, 그리고 대부도를 위하여”

대부도미래발전위원회 임·직원 일동



안산시 교육혁신 정책 시리즈

“안산, 머무는 도시냐 떠나는 도시냐... 교육에서 답 찾을 때”



지난해 3월 15일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개소식 및 입학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 명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 안산시는 교육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바라본다.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행정·학교·학부모·기업·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산형 교육혁신 모델링 구축에 나서며,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안산시 교육혁신 정책 시리즈를 통해 통계에 근거한 안산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안산시를 조명했다.

안산시는 2013학년도부터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학생 간 서열 완화를 목표로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했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교육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평준화 이후 학교 간 격차는 줄었으나, 보편 교육 기반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정체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이며, 교육환경을 이유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택하는 사례도 찾아

지고 있다.

교육 성과 지표는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안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5,685명 가운데 대학 진학률은 71.4%였으며, 이 중 4년제 대학 진학자는 2,640명(46.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다. 단순히 진학률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평준화 이후의 교육 환경 요인이 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유출’이다. 안산은 반월·시화산단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해 풍부한 일자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졸업 이후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과 산업 현장 간 연계 시스템이 약하고 미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결국 지역을 떠나는 상황은 안산의 인구 감소와 도시 경쟁력 저하까지로도 직결된다.

이제는 창의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

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더해 지역 산업 연계형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안정적 정주(定住)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 - 대학 협력 모델 가동... 영재교육센터 신설

안산시는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현재 설립·운영 중인 영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조기 발굴하고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재교육센터는 한양대학교 ERICA, 고려대안산병원 등 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과 전문 인프라를 활용, 의공학·과학·로봇·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연구 장비, 실험실, 전문 교수진을 개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교실 수업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실질적 연구 활동

과 창의적 탐구 기회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센터는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과정 운영 ▲팀 기반 융합 프로젝트 학습 ▲산학연계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은 학생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역 정주 인재 육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에 들어선 두 곳의 영재교육센터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대학 - 지자체 -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혁신 플랫폼”이라며, “안산의 학생들에게는 도전적 학습 환경을, 지역사회에는 장기적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공고, 보편 교육 넘어 맞춤형 특화 교육

안산시 소재 원곡고등학교가 안산시청, 안산교육지원청, 학교와의 협업

으로 2024년 9월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대상 학교로 선정되며 보편 교육에 더해 학생 맞춤형 특화 교육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모를 거쳐 선정하는 학교다.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며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령, 지역의 유망 기업에 교육 참여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원곡고등학교는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경기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원곡고등학교는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혁신 모델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와 진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학생을 성장시키는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청년 정착 유인

안산시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기반해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기업·유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시청 제3별관에서 ‘안산 로봇도시 루트(Root&Route)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이하 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안산 로봇도시 루트(Root&Route)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오랫동안 뿌리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온 안산시가 직업교육 혁신으로 안산의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 로봇산업의 뿌리

도시(Root)로 도약하는 길(Route)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센터는 지능형 로봇을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학과를 보유한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재 양성 경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 기술 전문가, AI 서비스 활용 전문가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센터 운영에 기반해 ▲산업단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대학 연계 심화 교육 및 단기학위 과정 운영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실습 지원 ▲공유 실습 장비 구축 및 운영 ▲현장 전문가 멘토링 및 교원 역량 강화 ▲학생·학부모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직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 적합 인재의 조기 확보가 가능해지고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지역 사회는 청년 고용 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어나고 자란 안산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서 이끌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안산형 교육정책 모델링을 구축해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교육을 기반으로 한 성장 - 취업 - 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한 곳에서 취업하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라며 “관련 정책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이 주목하는 안산형 교육 도시 모델을 공고히 확립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며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저널트레킹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 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는 ‘저널 트레킹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오전 7시30분 출발 (오전7시 20분까지 집결)
2. 장소 : 포천 국립수목원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필요)
4. 참가비 : 1인 5만원 (식비 등 여행자보험 포함)
5. 입금계좌 : 농협 351-1378-7091-43 (예금주 : 윤성용)
6. 집결장소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7. 연락처 : 대부도저널 신문사 032-880-9994 / 010-6595-9944 (김태창 편집국장 : 010-4900-4152)

15년 전통 ‘양꼬치의 명인’, 드디어 대부도에 상륙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양꼬치 전문점 ‘소문난 양꼬치’



15년 전통의 맛과 철학을 지켜온 ‘양꼬치의 명인’이 드디어 대부도에 상륙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문을 연 ‘소문난 양꼬치’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영업정신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단독건물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소문난 양꼬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16-21(대남로 64)에 들어선 단독건물의 웅장한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15년 전통의 맛과 철학을 지켜온 ‘양꼬치의 명인’이 드디어 대부도에 등지를 틀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문을 연 ‘소문난 양꼬치’는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영업정신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양꼬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점이다. 펜션, 각종 모임 장소, 행사장, 심지어 집 앞까지 직접 찾아가는 출장 숯불구이 서비스를 운영해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을 생각한 ‘패밀리셋’, 가격은 낮추고 만족은 높이고

‘소문난 양꼬치’의 대표 메뉴는 단연 패밀리셋(4인 기준)이다. 원래 10만 원대에 형성될 수 있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4인은 가족”이라는 사장님의 생각으로 8만 원대에 제공된다.

패밀리셋에는 양꼬치 10개, 양갈비살꼬치 10개, 양통갈비 650g, 그리고 꺾배리우 또는 가지탕수까지 포함된 양꼬치의 모든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구성이다. 여기에 양통다리

는 1시간 전 예약 시 제공되며, 양통갈비는 주문 후 약 20분 정도 기다리면 최상의 상태로 맛볼 수 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

이 점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음식 맛뿐만이 아니다. 매장 입구에는 턱 없는 출입구가 설치돼 있으며, 붉은 색으로 마감해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특히 이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주차장 면적 3면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점에서, 사장님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는 것이 이곳 주인의 확고한 소신이다.

단독건물·넓은 주차장…모임 장소로도 제격

‘소문난 양꼬치’는 단독건물에 자리잡고 있으며, 최대 20대까지 주차 가능한 넓은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큰 길가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

단체 모임, 가족 외식, 각종 회식 장소로 손색이 없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사장님”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다.

맛있고 건강한 양고기의 가치

양고기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과 체력 보강에 도움을 주며,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아연과 셀레늄이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 유지와 두뇌·신경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유다.

15년 전통의 맛, 사람을 향한 진심, 그리고 대부도의 새로운 명소. 양꼬치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답은 하나다.

‘소문난 양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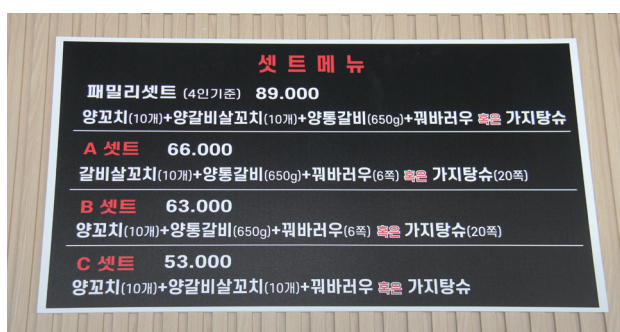
주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16-21(대남로 64)

예약: 032-880-8687 /

010-7233-0188

출장예약: 010-2115-3999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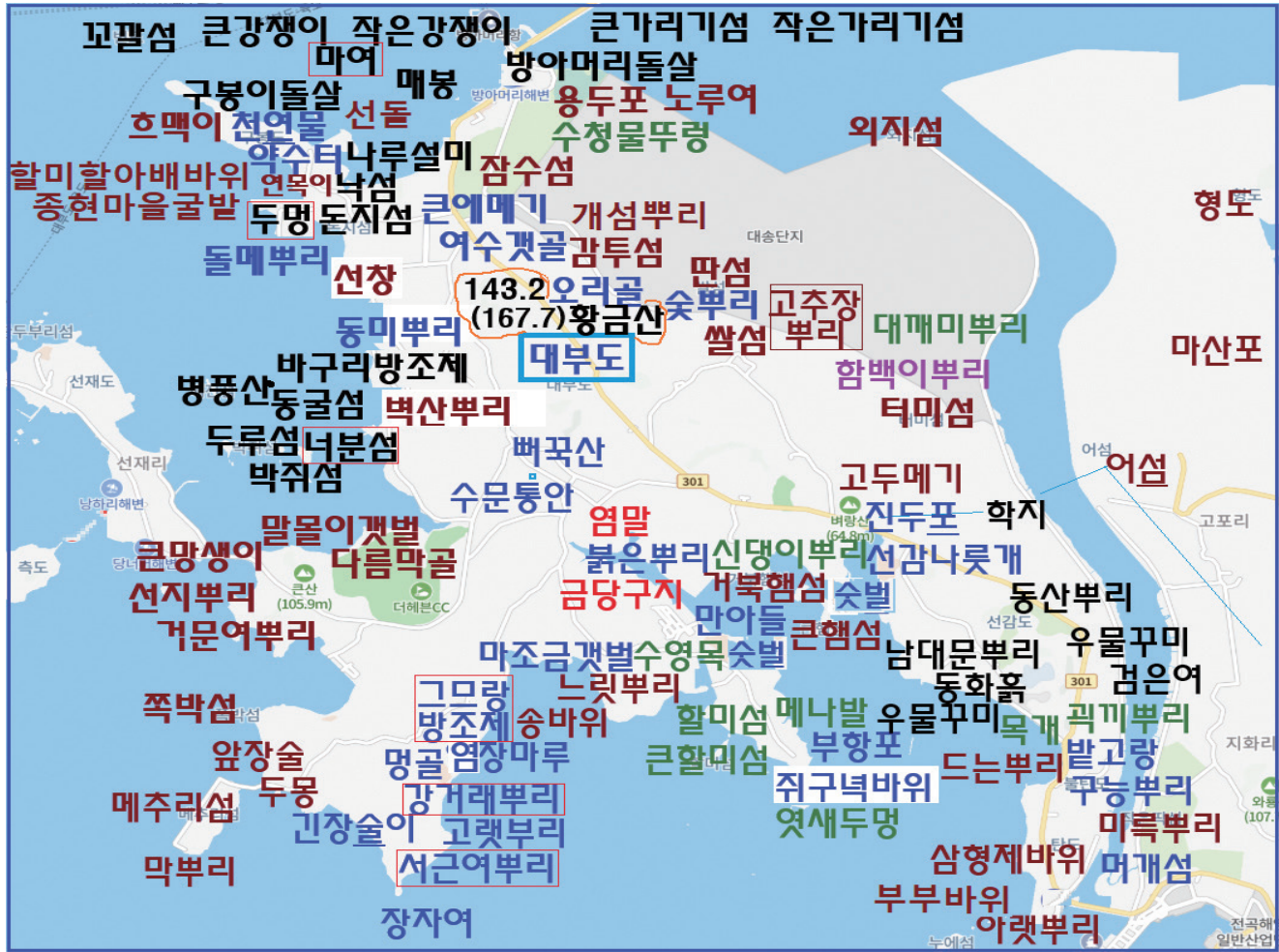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13회 지혜의 섬 대부도, 정감이 묻어나는 환경친화적인 땅이름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1994년 말부터 시화호 수위(水位)는 공단 지면(地面)보다 1m 낮도록 조절 하기 때문에 광활한 황금어장이 빛을 잃고, 어패류가 죽어서 산더미처럼 쌓여 죽음의 호수가 된 곳이 시화호와 대송습지이다. 해산물이 지천이던 대부도 연안에는 섬사람들의 삶과 자연 현상이 담겨진 아름다운 우리말 지명이 많았으나 어장 황폐화와 더불어 사라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대부도에는 갯벌과 해변에 있는 큰 바위 관련 전설이 많다. 방아머리 선착장에 신선이 놓고 갔다는 정자모양의 바위섬 큰강정리와 작은강정이, 마귀할멈공깃돌, 고기 잡으러 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바위가 되었고, 할머니가 바위가 된 말을 듣고 할아버지도 바위가 되었다는 구봉도 할미할아배바위가 있다. 강한 바람이 부는 밤이면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는 송바위, 선감도의 마귀할멈 뒷본자리 선돌, 탄도의 삼형제가 부모를 기다리다 바위가 되었다는 ‘삼형제바위’ 아들이 바위를 되



〈섬사람들의 지혜와 자연현상이 담겨진 아름다운 우리말 대부도 연안 지명〉

다는 말에 놀란 부부가 선돌이 되었다는 ‘부부바위’ 등이 있다. 대부도는 지형이 낙지발 같이 갯벌로 뻗어 있어 ‘뿌리섬 또는 낙지섬’이라 하였다. 종현동 해안의 느릿뿌리, 돌메뿌리, 동미뿌리, ‘백산뿌리’가 있다. 흥성리에 해적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선지뿌리, 거문여뿌리, 흘곶에는 대부도 끝의 막뿌리, 조금 때 서서 건넜다는 행낭곡 서근여뿌리, 고랫뿌리, 강겨래뿌리, 중부흥 백합 갯바탕이 있

던 느릿뿌리, 섯터에 붉은뿌리, 신당리에 신대이뿌리, 영전애 육지 쪽의 배가 처음 정박한 함백이뿌리, 죽순같이 뻗어 있어 ‘뿌리섬 또는 낙지섬’이라 하였다. 종현동 해안의 느릿뿌리, 돌메뿌리, 동미뿌리, ‘백산뿌리’가 있다. 흥성리에 해적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선지뿌리, 거문여뿌리, 흘곶에는 대부도 끝의 막뿌리, 조금 때 서서 건넜다는 행낭곡 서근여뿌리, 고랫뿌리, 강겨래뿌리, 중부흥 백합 갯바탕이 있

쳐져 있는 것을 ‘여(黎)’라고 한다. 방아머리 선착장의 말을 닮은 ‘마여,’ 용두포 옆의 노루를 닮은 노루여, 고랫부리 근처의 서근여와 고기잡이 간 장남이 바위섬에 걸려있었다는 장자여, 검은 바위가 뻗어 나온 검은여 등이 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자갈이나 돌들이 길게 깔려있는 곳을 장술이라 하였다. 방조제 수문 근처의 방아머리긴장술, 흘곶장술, 정진물마을 해변의 긴장술, 말부흥 할미섬긴장술, 누에섬긴장술 등이 있다. 큰돌과 바위가 많은 곳은 굴밭이었고, 자갈과 모래가 많은 곳에는 바지락, 낙지, 조개, 꽃게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었다.

어장에 나가 목이 마르면 손을 가리고 물을 받아먹은 섬, 큰가리기섬과 작은가리기섬, 태풍이 오면 배를 끌어올린 나루섬, 위험한 물목 흐맥이, 복날 화성사람까지 와서 놓고 간 천연물약수터, 새의 동지가 많았던 돈지섬, 골짜기에 물이 많아 갯골 저수지를 이룬 여수(餘水)개, 샘물이 솟

데스크 칼럼

말이 아니라 결과다



김태창
편집국장

어 왔다.

이번 단속이 이전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속반의 발길이 잦아지고, 적발이 고발로 이어지고, 원상복구와 처벌이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긴다. “연중 단속”이라는 말이 현수막에만 머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루 이를 반짝 단속이 아니라,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

대부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안산시가 대부도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성토·불법개발행위 특별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만 놓고 보면 더 할 나위 없이 강경하다. 문제는 언제나 그 다음이다. 단속은 늘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과 주민들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결과를 요구한다.

무심코 한 성토도 처벌 대상이라는 문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농지 성토는 2m 이내라도 조건이 불고, 1,000㎡ 이상이거나 50cm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염전과 잡종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함이 반복됐고, 그 틈을 타 불법은 관행처럼 번졌다. 행정의 빈틈을 시험하는 개발, 눈감바위가 많은 곳은 굴밭이었고, 자갈과 모래가 많은 곳에는 바지락, 낙지, 조개, 꽃게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었다.

아난 우물꾸미, 용두포 가는 돌다리 에메기, 돌을 밟고 건너 돌메기, 해염채 건넌 수영목, 수산물을 씻은 큰 웅덩이 두멍, 학이 갯골을 건너는 것을 보고 대부도로 건너와 목숨을 구했다는 학지, 큰 우물이 있는 한우물, 황금산에서 금닭이 날아왔다는 금당구지, 그물을 끌며 고기를 잡던 고두메

특히 대규모 매립지와 농지 성토, 폐기물 불법 반입은 합동 단속의 핵심 대상이다. 환경 훼손, 비산먼지와 소음, 농지법 위반까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없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적발 이후가 더 중요하다. 고발, 벌금, 복구 명령이 실제로 추적돼야 한다. 그래야 “대부도에서는 불법이 안 통한다”는 말이 나온다.

대부도는 투기의 실험장이 아니다. 환경과 삶의 터전 위에 쌓은 불법 성토는 결국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 안산시가 진정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면,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구호는 충분하다.

이제 들려야 할 소리는 단 하나다. 불법이 대부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건강해지고 싶다면?



소문난 양꼬치

15년 전통의

“양꼬치 명인” 드디어 대부도에 상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16-21(대남로64)

예약문의 032-880-8687
010-7233-0188

출장문의 010-2115-3999

*양통다리 양통갈비 양꼬치 전문
*수년의 노하우로 잡내제거 완벽
*출장 요리 서비스 가능
*단독건물 · 넓은 주차장 (20대 가능)